

[아산정책연구원] 제7회 아산서평모임

2016년 3월 16일(수)

주제도서: 『잡종사회와 그 친구들 -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문명전환론』

한국발 동아시아형 사회이론을 위하여:
동아시아 아나키즘과 개인/자유주의의 재인식

김성국 (부산대, 명예교수/한국해양사회학회 회장)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책에 대한 발표와 함께 귀중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준 아산정책연구원과 정수복 선생님 고맙습니다.
특히 고명한 정치학자 강정인, 서병훈 두 분 선생님을 토론자로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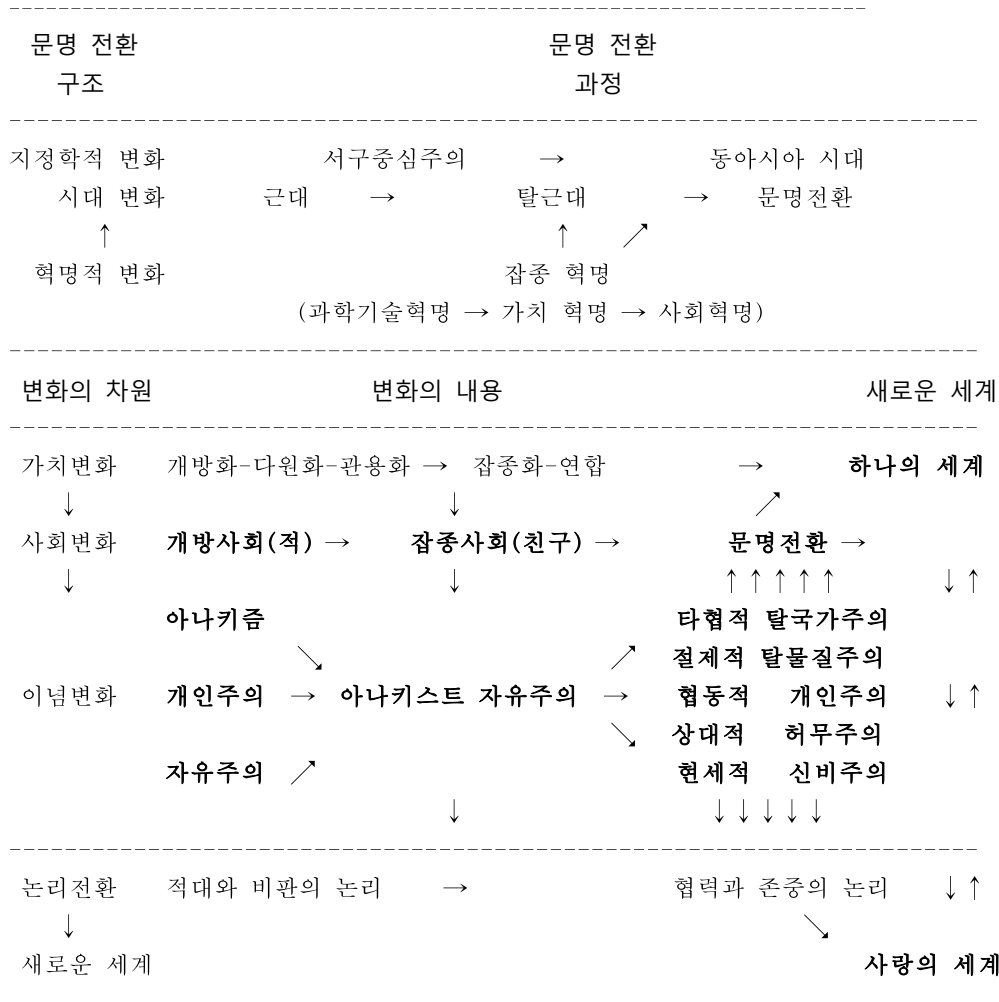
발제용 요약문은 지난 2월 27일 한국이론사회학회의 삼토회에서 사회학자들을 대상으로 책의 배경, 내용과 주장 등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작성되었지만, 폭 넓은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미에 추가 토론용 자료를 달았습니다.

1.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이 책은 이념사적으로 20세기 중반 등장한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리고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추구한 자유주의 정신을 계승하되, 그것을 탈근대 21세기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개인주의적 그리고 동아시아적 아나키즘과 잡종화하여 아나키스트 자유주의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사랑과 하나라는 깨달음에 연결된 개인주의라는 몸통(體)에 아나키즘의 실용화와 자유주의의 급진화라는 양 날개(用)를 단 아나키스트 자유주의는 동아시아 발 문명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동아시아적 세계주의를 지향한다. 사회학도 개인적 전환 혹은 개인사회학(Individual Sociology)을 모색해야 한다. 잡(종화)의 상상력이 기존 사회학적 상상력을 환상과 몽상의 신비주의적 수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나키스트들의 유토피아인 아나키는 개인적 자유의 대지이자 동시에 잡의 세계 혹은 사회적 해방이다.

책의 내용에 관한 소개는 책에 제시된 아래의 도표들로서 대신하고자 하니 자유롭게 생점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 사회학적 함의는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였다.

[표1] 탈근대 문명전환의 다차원적 전개



[표2] 개인의 지적-존재론적 확장

개인의 확장 형태	확장의 전개
지적 확장	부지, 무지, 미지 → 비판적 토론과 협동 → 관용과 존중 → 사랑 → 하나
존재론적 확장	즉자적 물아적 무아/맹아 → 대자적 실존적 유아 → 무위적 합일적 탈아/물아 ㄱ 卽自的 物我的 無我/萌我 → 對自的 實存的 唯我 → 無爲的 合一的 脫我/沒我 ㄱ (존재의 생성) (존재의 진행) (존재의 숙성)

[표3] 개인의 사회학

차원	지향성
존재론	즉자적 몰아적 무아/맹아로서 하나
인식론	대자적 실존적 유심/유아로서 세계
실천론	무위적 합일적 탈아/몰아로서 사랑

[표4]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의 구성: 음양오행적 연관

Composition, Virtues, Functions, and Yin/Yang & Five Ways of Anarchist Liberalism

Five Friends of Hybrid Society (雜種社會 五友)		Confucian Five Virtues (五德)	Parsonian AGIL + Religious Function (五機能: GAILR)	Five Ways (五行)
Balancing Power of Yin/Yang (陰陽)	Anarchist Liberalism			
Compromising (妥協的)	Post-statist	仁(愛)	Politics G (goal attainment)	木
Moderate (節制的)	Post-materialist	(正)義	Economy A (adaptation)	火
Cooperative (協同的)	Individualist	禮(節)	Society I (integration)	土
Relative (相對的)	Nihilist	知(識)	Culture L (latency)	金
Secular (現世的)	Mysticist	信(仰)	Religion	水

[사회학적 함의]

- ① 우리는 무지와 부지 그리고 미지의 존재이다.
비판 사회학에서 존중의 사회학으로 넓어지자.
- ② 누가 국가와 사회를 독점하고, 규정하는가?
국가와 사회의 개인화를 혹은 사회학의 개인적 전환을 통해서
개인(중심)의 (잡종)사회학으로 나아가자.

- ③ 초기 사회학은 문명전환을 예언/해석/준비하는 종합=융합=잡종화 사회학이었다.
문명전환의 사회학이라는 전통을 지속하자.
- ④ 대안 이념으로서 맑시즘의 설득력은 복지국가론이나 공동체론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퇴색하고 있다.
아나키즘, 특히 유불도선에 내장된 동아시아 아나키즘을
사회학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주목해 보자.
- ⑤ 왜 동아시아의 지혜(천지인합일)는 하나에 관심을 가졌을까?
사랑(인/측은지심, 대자대비, 무위자연, 흥익, 공감, 조화, 협력, 연대, 존중
(등)의 길은 하나에로의 길이다.

2. 한국 발 세계이론 혹은 한국 국적(?)의 이론

다른 한국의 사회(학)이론가들처럼, 나도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해 왔다. 이번 책에서 한번 시도해 보았다. 어떻게? 문명전환이라는 세계적 주제에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접근했다. 우선 한국의 선후배 및 동료 사회학자들의 발표와 연구를 대거 활용하였다. 주로 논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입론의 기반을 다지고, 쟁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타 분야의 연구들(철학, 정치학, 경제학, 정치이론가, 정치운동가, 언론인, 소설가, 시인)도 가능한 동원하였다. 모두 세계적 수준의 연구요 주장이다. 이들은 나의 글의 외피를 두텁게 하여 예상되는 비판적 공격으로부터 방호막이 되어주거나 도피처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연구자들의 축적된 연구토대 위에서 한국적 이론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소위 서구의 대가들, 뒤르케임, 월러스틴, 바디우, 벡, 부르디외 등의 연구를 반박하거나 비판적으로 대면하였다. 그들을 우러러 쳐다보며 그들에게 의존하면 그들은 막강하고 훌륭해 보인다. 그들을 자유롭게 혹은 그저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허점을 볼 수 있다. 서구이론의 족보에 매달리다 보면 아류와 주변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다.

끝으로 한국적 혹은 동아시아적 논리와 가치의 원형인 유불도선으로부터 무언가를 비록 조야하더라도 끄집어내고,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하였다(예컨대, 천지인 합일, 물아일체, 하나, 음양오행, 유아유심, 신선사상과 신비주의, 상대적 허무주의, 안빈낙도의 탈 물질주의, 동아시아 아나키즘과 개인주의, 흥익인간, 화쟁이나 잡가로부터 잡종화 등등). 물론 아나키스트 자유주의는, 한국적으로는, 우당 이회영, 단재 신채호, 우근 유자명, 박열 등으로부터 상해 남화한인청년연맹에 이르기 까지 무정부자유

를 위한 의열투쟁(김영범, 2010) 정신을 계승하고, 해방 후 독립노동당과 민주통일당으로 이어지는 직접행동 실천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3. 개인의 사회학

이 과정에서 사회학의 개인적 전환을 추구하였다. 무리한 감이 없지 않으나, 모든 집합적 당위 개념들(국가, 사회, 공동체, 연대, 도덕, 질서, 정의 등)을 고정관념으로서 비판하였다. 사회 또한 허구일 수 있다. 사회/공동체/질서/연대라는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신비화하거나 신성시하며 거기에 의존하려는 타성적 관행에 우리 사회학자들이 젖어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강수택(2015)의 연대, 이철(2013)의 루만식 사회와는 상호 다양한 접합점을 발견한다. 나의 (불가적-슈티르너적) 유아유심적 개인주의는 (동아시아 사유의 심원한 기축원리라 할 수 있는) 사랑과 하나에 의해서 그 존재론적, 인식론적, 실천적 기반을 구축한다. 최근에 강조되는 공감과 동감의 문명, 마음/감정/사랑의 사회학을 동아시아적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동아시아의 위대한 사유들이 한결 같이 강조하는 개인적 깨달음-여기에서 시작하여 여기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회학적 선차성과 귀결점을 발견하였다. 물론 개인은 성선과 성악의 양면적 존재이다. 개인적 깨달음이 모든 집합적인 것을 해결한다고 믿을 수 없지만, 적어도 당사자 개인은 심안기화(心安氣和)를 누릴 것이다. 개인(소유/소속)의 국가/사회, 개인(형성/변형)에 의한 국가/사회, 개인(안락)을 위한 국가/사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내가 국가요, 사회요, 공동체요, 연대요, 도덕이요, 개혁이요, 혁명이다. 무슨 소리인지! 마찬가지로 전체는 무엇이고, 무슨 의미인지?

4. 문명전환의 동아시아적 차원

동아시아시대의 도래가 문명사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하려면 지정학적 권력이 동이나 물질 토대의 집중이라는 차원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가치지향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대안적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 동아시아공동체가 또 하나의 지역적 정치경제블록으로 구상되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베버가 자본주의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부각/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아시아에서 Global East Asianism을 도출/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문명전환을 추구하는 대안이념으로서 아나키스트 자유주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차원 가운데서 특히 동아시아적 연관성이 높은 탈물질주의, 허무주의, 신비주의를 언급해 보자.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주의의 과잉이 문제다. 누구나 소유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에 관심을 갖자. 욕구과다와 가치과잉에 휩싸여 이리저리 좌충우돌 날뛰는 오늘의 개인들에게 퇴隱(退隱)의樂(樂)을 안겨주는 허무주의가 참으로

요구된다. 깨달음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무서운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는 과학만능주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신통(神通)한 신비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세상의 혼란과 함께 이미 시작된 종교의 귀환이 정통성을 다투는 21세기 십자군전쟁이나 마녀사냥으로 폭력화되고 있다. 신인합일의 여러 갈래와 경지를 찾아보자. 초월, 절대, 유일, 인격신의 개념이 약한 동아시아의 위대한 종교들은 공생공존을 수용한다. 역의 극측반은 후천개벽-정신개벽의 문명전환을 예고하고, 음양오행은 상생상극의 조화균형을 요구한다.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러한 사실들을 앞으로 더욱 그럴싸하게 포장해야 한다.

5. 잡, 잡종, 잡종화로부터 사회학적 감수성-상상력-환상/몽상(김문조, 2015)을 배양하자.

어떻게?

이재혁(2015)을 참고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찾아보자.

사회학자가 때로 환상과 몽상을 즐기게 되면, “사회학이 예술을 만날 때”(정수복, 2015)가 아닐까? 조선의 선비들은 풍류와 언어게임을 아는 시인이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환몽의 세계를 발견/개척하자.

개인적으로는, 단군/풍류사상에 고유한 신선을 찾고 싶다. 인간적인 참으로 인간적인 신으로서 신선? 애주가로서 주선의 경지를 발견하면 그 인생은 성공이다.

[토론용 추가자료]

“알파고의 등장과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그간 과학기술혁명이 진전시켜온 포스트휴먼 혹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세계가 알파고의 등장과 함께 성큼 다가왔다. 나의 아나키스트 자유주의(25 페이지 주 1, 9장 1절)는 여기에 주목한다. 비록 이문열의 표현처럼 “스산한 기분”이 들더라도, 우리는 기계적 인간(homo mechanicus)의 아름다운 창의성을 인정해야 한다. 개인 인간도 따지고 보면 신비스런 기계가 아닌가. 만약 불성과 도가 만물에 내재한다면 영성이나 영혼이 기계에 존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기계도 욕망이나 자유의지를 가지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나는 10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넥타이, 양복 등등에 애정을 갖는가? 그것들이 매력을 가지고, 애정을 요구하기 때문은 아닌가? 개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자유의지나 욕망을 그들은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동아시아의 천지인합일, 만물일체, 물아일여의 하나사상과 동서양 공통인 사랑의 논리를 다시 생각해 보자. 개인을 타인, 사회, 만물만사, 그리고 우주와 연결하는 하나와 사랑은 잡종화로서 아나키스트 자유(주의)가 의지하는 가치이자 사실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을 위한 개인에 의한 이념이다.

그러나 개인의 존재론적 지위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

이제 개인은 더욱 더 무지와 부지의 존재자로서 미지의 세계에 존재한다.

19세기와 20세기의 자유주의가 상정하였던 합리적 개인은 더욱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의 개인은 인간중심주의라는 혹은 인간성을 지닌 고상한 존재라는 자만과 착각을 버리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은 각양각색이요 천차만별인 존재론적 개체로 확장되어야 한다.

알파고도 나 개인의 분신이자, 변신이다. 나의 자유의 표상이요, 가능성이다.

알파고는 잡종사회의 친구들이 기대하던 파괴적 창조적 잡종화이다. 인간의 존재론적 권력독점을 파괴한 비인간의 자기실현이다.

알파고로부터 인공지능이라는 인위적 존재성 대신에 아름답고, 신비롭고, 창의적인 자연적-무위적 존재성을 발견해 보자. 모든 생명체는 비생명체들의 복합잡종화이다. 모든 비인간생명체는, 특히 사물은 인간생명체들의 근본구성이다.

알파고는 당연히 개인 인간을 구성하고, 표상하고, 실현한다.

알파고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위해서 개인 인간들의 자유가 더욱 더 신장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문화적 자유, 종교적 자유는 자유의 정치, 자유의 경제, 자유의 사회문화, 자유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 권력(자)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에 의한 탈권력화이다. 이것이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자가 걷는 길이다. 근대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넘는 탈근대의 환(상)몽(상)적 신비주의가 요구되는 길이기도 하다. 자유는 정주보다는 모험을, 고정과 고착보다는 유동과 변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이 아닐까?

[참고문헌]

강수택, 2015, “함석헌의 연대사상,” [사회와 이론] 27-2: 139-180.

김문조, 2015, “빅데이터를 통해 본 2030년대 한국사회 메가트렌드,” 한국이론사회학회 연례 학술대회(8월 21-22일,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세기전환의 한국사회], 발표 PPT.

김영범, 2010, [혁명과 의열-한국독립운동의 내면], 경인문화사.

이재혁, 2015, “분류와 창발에 대한 잡의 사회학적 상상,” [사회와 이론] 27-2: 309-352.

이철, 2013, “(작동하는) 사회의 (관찰하는) 사회: 니콜라스 루만의 [사회와 사회]의 이론적 함의들,” [한국사회학] 47(5): 33-71.

정수복, 2015, [응답하는 사회학: 인문학적 사회학의 귀환], 문학과 지성사.